

지역 청년 영화감독 작품 만나다

아이엠, 14일 청년문화도시락프로그램 '영화의 밤' 개최

(사)아이엠은 오는 14일 오후 5시 2024년 청년문화도시락프로그램 '영화의 밤'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전주시 청년참여예산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지역에서 활동 중인 청년 영화감독들의 영화를 선정해 시민들에게 가을밤을 빛내줄 특별한 영화 상영 시간을 마련했다.

이날 2024 전주국제영화제 상영작 김태휘 감독의 단편영화 '서리다'를 시작으로, 전주시민미디어센터 여성영화제작워크숍으로 제작된 서수민 감독의 '여름을 기다려'와 김누리·조영빈 공동 연출의 '사라지지 않은 것들'이 상영된다.

특히 서수민·김누리·조영빈 감독과 함께하는 GV를 통해 영화의 뒷이야기도 함께 나눌 예정이다. 또한 전주 대표 밴드 뮤즈 그레이의 '무성영화 라이브 콘서트'를 통해 고전 무성영화에 라이브 연주를 더한 생동감 넘치는 공연도 관람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떡거리, 제로웨이스트 물품, 각종 소품 등 플리마켓 부스가 운영된다.

관람은 별도의 신청 없이 참여 가능하며, 관람객에게는 웰컴 팝콘을 증정할 예정이다.

문의는 전주티켓박스 인스타그램이나, 전화(010-4108-6321)로 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영화의 밤' 포스터

한국전통문화전당, '1일 명예원장' 위촉

김종상 전주인후발전포럼 회장, 주요 현안 업무보고·간담회 등 가져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은 '1일 명예원장'으로 전주인후발전포럼 김종상 회장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3일 전당에 따르면 이날 세미나실에서 진행된 위촉식에서 김종상 명예원장은 주요 현안 업무보고를 받은 뒤 전당 내 시설들을 순회하며 운영 현황을 파악한 후 부서장들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전당의 1일 명예원장 제도는 시민 참여를 통해 열린 행정 실천을 도모하고, 공감대 형성에 기여하고자 기획됐다.

김종상 명예원장은 "다양한 전통문화 콘텐츠 통해 전주의 미래가치를 엿볼 수 있는 자리였다"며 "전당의 명예원장이라는 뜻깊은 소임을 다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도영 원장은 "소통하는 전당이 되기 위한 첫걸음에 함께해 준 김종상 명예원장에게 감



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민과 공감하는 전당이 될 수 있도록 열린 행정을 적극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종상 명예원장은 전주시통합체육회 이사, 전라북도항토보호회 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전주시민 대상 공익장, 국제청 아름다운 납세자상, 전라북도체육상, 지방자치발전 표창장, 전북 특별자치도지사 새로운 전북 만들기 표창장 등 40여 개의 포상 이력이 있다.

/장은성 기자

조선 최초 여성 명창 '진채선의 날 기념식' 고창서 열려

심원면 사등마을 진채선 생가터서 개최

고창군이 주최하고 진채선 기념사업회(회장 김선백)와 진채선 선양회(회장 최해진)이 공동 주관한 제4회 진채선의 날 기념식이 지난 1일 고창군 심원면 사등마을 진채선 생가터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진채선의 날은 고창군 심원면과 주민들이 생가터 풀베기 작업부터 벽화 그리기 등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더욱 뜻깊은 행사가 됐다.

기념식은 전통악그룹 동남풍의 삼도설장고 가락 식전공연, 진채선 선양 유공자 표창, 환영사, 축사에 이어 추모제가 진행됐다.

추모제는 심덕섭 고창군수, 조민규 고창군의 회 군의장 및 군의원, 윤준병 국회의원, 김만기 전북특별자치도 도의원의 헌화와 라남군 진채선기념사업회 자원위원의 추모시 낭송이 있었다.

축하공연은 국가무형유산 판소리 심창보 보유자인 김명자 명창이 수궁가 중 고고천변 대목을 부르고 채수정 소리단이 비내리 '채선을 그리며', 흥보가 중 '제비노정기', 단막창극 흥보가 중 '화초장'을 불렀다. 이어 한국예술중



고창군이 주최하고 진채선 기념사업회와 진채선 선양회가 공동 주관한 제4회 진채선의 날 기념식이 지난 1일 고창군 심원면 사등마을 진채선 생가터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합학교 전통예술원 음악과 교수인 채수정 명창이 흥보가 중 '박타령'을 불러 큰 호응을 받았다.

1847년 고창군 심원면 감당포에서 태어난 진채선은 목소리의 성량이 풍부하여 천부적인 소질을 타고났다. 판소리 여섯바탕 사설을 집대성한 동리 신재효선생을 찾아 판소리 명창으로 높은 경지를 이루고, 자신의 뛰어난 재능

을 경북국 경회루 낙성연에서 선보여 여성들이 참여할 수 없었던 판소리에 변화를 이루어 여류 극창가의 호사가 되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판소리를 비롯한 우리 고유의 전통예술과 문화가 가진 아름다움을 더욱 널리 알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김제지평선축제 백일장대회' 도내 초·중·고 학생으로 확대

김제지평선축제 백일장대회가 도내 초·중·고 학생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3일 김제시(시장 정성주)에 따르면 김제문화원(원장 박현)은 매년 실시되던 관내 초·중·고 학생 백일장대회를 제26회 김제지평선축제

부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 협의해 도내 초·중·고 학생으로 확대한다.

이번 백일장대회는 오는 10월 4일 김제 동헌(사적 482호)에서 도내 초·중·고 학생들에게 문화 창작활동의 기회를 통해 꿈나무 육성의

장이 될 전망이다. 박현 문화원장은 "김제지평선 축제의 위상에 걸맞게 교육부에 요청해 김제문화원 주관으로 전국 학생 백일장 대회를 개최하고 수상 훈격을 교육부 장관상으로 높이 평생교육도시인 김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정읍시, 국가등록문화유산 '홍제일기' 소유자에게 등록증 전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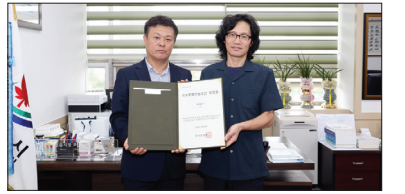
정읍시는 지난 2일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된 홍제일기의 등록증을 기행현의 후손이자 홍제일기의 소유자인 기근 씨(솔티도예공방 방장)에게 전달했다.

홍제일기는 유생 기행현이 1866년부터 1911년까지 약 45년간 기록한 일기로, 총 7책에 걸쳐 1099쪽, 약 42만 5552자로 이뤄져 있다.

특히 동학농민혁명기 백산대회의 정확한 날짜(1894년 음력 3월 26일)를 밝히는 중요한 기록을 담고 있어, 동학농민혁명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1866년부터 1894년까지의 물가변동, 가뭄, 세금 등 지역사회의 변화를 생생히 기록하고 있어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까지의 역사적 사건을 새롭게 조명할 수 있는 중요한 사료로 평가받고 있다.

시는 홍제일기를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하기 위해 지난 2022년 9월 신청해 약 2년여



만인 지난달 8일 국가등록문화유산에 등록되는 성과를 이뤘다. 이로써 시는 동학농민군 한 달문 편지에 이어 열한 번째 국가등록문화유산을 보유하게 됐다.

이학수 시장은 "홍제일기의 국가등록문화유산 지정은 정읍의 역사적 가치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역사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완주 문화도시·고산고, '청소년 리빙랩' 캠프 성료

완주문화도시지원센터가 최근 고산고등학교에서 '완주 문화도시 청소년 리빙랩 - 고산상사 캠프'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완주 문화도시와 고산고등학교가 공동으로 주최한 행사는 '2024 청소년 미래학교' 사업 일환으로 지역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직업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며, 창의력과 팀워크를 키울 수 있는 특별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양일간의 캠프에서 청소년들은 지역 문화기획자와 예술가 멘토 5명과 함께 기획, 디자인, 제조, 홍보의 전 과정을 직접 경험하며, 각 단계에서 전문가의 경험과 노하우로 실질적인

직업 경험을 쌓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매년 진행해오던 고산고등학교의 '만경강 기행'을 주제로 공경여행사를 만드는 과정에서 청소년들의 주체적 참여와 활약이 두드러졌다.

캠프에 참여한 학생, 전문가 멘토, 교사들은 지역의 중요 문화자원들과 함께 '문화 리빙랩'을 운영하며, 실제 직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문제 해결력과 협업,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과정을 몸소 만들어냈다. 결과물들은 10월 예정된 '만경강 기행:GO(고)등투어'로 실제 운영되며, 향후 완주 문화도시 사업의 프로젝트에도 반영될 예정이다. /완주=염재복 기자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km²,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